

금정면민의 날·영암대봉감 축제 성료

금정농협 대봉감산지유통센터서 2일간 개최
출향인의 밤·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 펼쳐져



'행복多감 금정대봉감, 맛나다!'를 주제로 한 제17회 '금정면민의 날 및 영암금정 대봉감 축제'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금정농협 대봉감산지유통센터에서 대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정면 문예체육진흥회가 주최

한 이번 행사는 금정 대봉감 시비 지인 안노리 모정마을에서 대봉감 풍작을 기원하는 고유제 봉행을 시작으로 출향인의 밤, 기념식, 대봉감 축제 등 면민·출향인·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2일 기념식에는 손점식 부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유니종 부의장, 우승희 도의원, 노영미 군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채규진 재경 금정면 향우회장 및 향우, 나병수 재광 금정면 향우회장 및 향우, 금정중종문화회 향우, 그리고 주민 및 관광객 등이 함께 했으며 박별근 재경금정면향우회 차운위원장이 면민의 상을, 남송리 정애숙씨가 효행상을, 고승철 전 금정면장에게는 공로패를, 전 전라남도의회 손태열 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수여 되었다.

기념식에 앞서 재경금정면향우회에서 박별근 자문위원장이 5백만원, 채규진 회장이 2백만원, 임사원 전 회장이 1백만원, 김해곤 원로위원장이 1백만원을 기탁하였으며 또한, 금정면 남·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백만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금정면협의회에서 1백만원, 문예체육진흥회 청정식 회장이 5십만원을 면민장학금으로 기탁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봉감 품평회에서는 4명의 심사위원이 무게, 색색, 당도 등 6개 항목을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용흥리 김영택씨가 대봉상을 수상하여 금정 대봉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대봉감 축제에서는 월평리 김금자씨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대봉감 큰장터, 대봉감 품평회 및 대봉감 요리 전시회, 대봉감 식초 발효?시음 홍보 코너, 대봉감 천연연색, 대봉감 까기 체험장, 대봉감 물 웃 전시회, 대봉감 시식부스 등 대봉감을 활용한 다양한 코너를 설치하여 영암 금정면 대봉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김규환 금정면장은 "행사에 많은 주민과 향우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향후 더욱 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토양검정서비스 무료 제공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관내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 검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3천300여 점의 토양을 분석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토양검정이란 말 그대로 '땅의 영양 상태'를 분석하는 일이다. 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땅의 영양이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토양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땅에 담겨 있는 영양상태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안내해 준다.

검정 항목은 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토양의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석회소요량 등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작물에 적합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해준다.

토양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필지의 5~6개 지점 토양에서 표토를 걷어내고 녹, 밭은 15cm, 과수는 30cm 깊이의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어 고운 체로 쳐서 500g 정도의 흙을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 토비, 비료를 뿌리기 전에 앞서 토양검정을 받는 것이 좋다. 시비량을 추천받아 농지를 지으면 작물 생육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기존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하는 비료의 양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김남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첫 단추를 잘 끼운 농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며, "건강한 토양, 건강한 작물을 위해서 꼭 토양 검정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제3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무안군 제3기 도시재생대학의 수료식이 11월 4일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 주도의 단위사업 발굴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 기관 양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제3기 도시재생대학 과정은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 참여를 통해 주민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목표로 60여명의 수강생이 모집 신청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안=이기성 기자

이번 과정은 도시재생 뉴딜의 이해,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및 주민의 역할 이해 등에 대해 교육받고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자 순천 도시재생 한마당에 다녀왔으며, 직접 수행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4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3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자는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안읍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장영식 부군수는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주시는 주민과 수료생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성군,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장성군은 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산모사랑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6천6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 산모사랑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산모와 아이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내년 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출산하는 산모 혹은 기간 내 출산 예정인 임부에게 월 2회씩 12개월, 연 48만 원(자부담 9만6천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오는 1월부터이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나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청정한 장성에서 생산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해 군의 미래세대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친환경농산물은 농가의 수익 증대는 물론 환경보호 측면에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장성=박종영 기자

함평군, 찾아가는 융화교육 실시

함평군이 귀농·귀촌인 등 지역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9개 읍·면 20개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최하는 전문 강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은 융화우수사례, 갈등관리방안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그림그리기, 시낭송 등 주민참여형 융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함평=김평준 기자

완도군, 2020년도 예산 21억 확정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0여 명의 군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안된 사업 30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완도타워 주변 유류 농경지 사계절 꽂돌산 조성', '주요 국도변 꽃길 조성' 등 24건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계속 발전하는 단계로 아직 운영상 부족하지만 계속 보완·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